



MSC 또 23,000TEU 발주 & Tortue에서 중국을 테스트하겠다는 BP

코멘터리

지난주 수주는

- ① 대한해운이 현대중공업에 GS칼텍스 용선으로 VLCC 2척을 발주했는데, 이번에는 S-Oil 용선으로 추가 2척을 계약한다는 풍문입니다. 조선사와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② 현대미포조선이 일본 Itochu로부터 1,800teu 2척을 수주했습니다.
- ③ 몇주전부터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의 Pantheon Tanker(Alpha Gas)와의 LNG선 2척 수주가 클락슨에 기입되었습니다. 선가는 \$185m으로 낮습니다.
- ④ 현대중공업도 스페인 Endesa로부터 용선발주인 Knutsen의 2호선을 옵션행사로 추가수주했습니다.
- ⑤ 삼성중공업이 Unisea로부터 3년만에 아프라막스 탱커 4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100만teu를 넘기는 추가 컨테이너선 발주...

- ⑤ MSC가 3,500teu 6척을 중국과 협의 중이고, 23,000teu 6척 + 옵션 6척의 투자 협의도 한국 및 중국 조선사들과 진행 중이라고 전합니다. 작년 DSME와 SHI에 나누어 발주한 11척은 Scrubber 장착이었는데, 이번에는 DF엔진을 채용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 ⑥ 현대상선의 23,000teu는 상반기 내로 발주되는 일정이었는데, 7월로 살짝 미루어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금호타이어, GM 사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양에서 다소 안타까운 소식은

- ⑦ BP의 Tortue FPSO에서 현대중공업+KBR 컨소시엄이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TechnipFMC+COSCO가 우세하다는 upstream 보도입니다. 가격 때문인지, 로컬 컨텐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기한이 촉박한 공사에 중국을 선택한 것에 놀라고 있고, BP는 간단하고 작은 FPSO라고 설명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받아가게 된다면, 아프리카 투입 FPSO를 최초로 중국이 제작하게 되는것이고, 향후 다른 오일메이저들도 중국 건조 FPSO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COSCO는 Hull과 Living Quarter 제작, Integration만 담당하고, 1.3만톤의 Topsides 모듈은 다른 곳에 하청을 줄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Statoil의 Johan Castberg Hull, Shell의 Vito FPU를 싱가포르에, 그리고 Tortue FPSO를 중국에 뺏깁니다. 한국과 끈끈한 관계를 가져온 오일메이저들이, 그 외의 대안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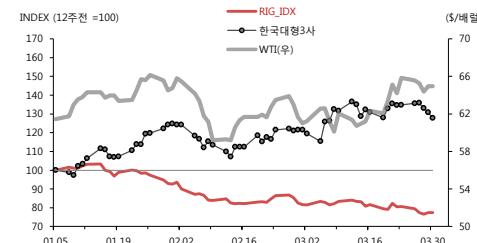
1등 모범생은, 일단 자기 공부에 더 매진해면서, 3년 후 2등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지 뚜껑을 열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외의 대안을 테스트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들에서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 Chapter 11 하에서, Seadrill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각 2척의 드릴쉽 계약취소, 그러나 Fredriksen 5월28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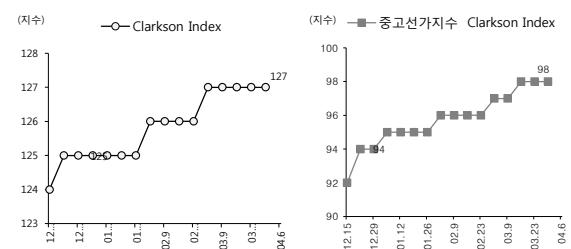
계약 및 해지금액 (십억원)	몰취 선수금 비율	금액	충당금 3Q17	매각희망가 (십억원)	환율 (원/\$)	매각희망가 (백만\$)
SHI	585.0	30%	175.5		409	383
	585.0	30%	175.5		409	383
	1169.9		351.0		819	1,070
DSME	624.3	20%e	124.9	116.8	383	358
	624.3	20%e	124.9	128.3	371	347
	1248.6		249.72		754	1,070

대표 차트

▶ 유가, RIG PLAYER, BIG3



▶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부활절로 쉼



▶ 후속으로 남은 해양 POOL들

지역	발주처	프로젝트명	현대	삼성	그외
2017년 수주					
GOM	BP	Mad Dog2			1월
모잠비크	ENI	Coral FLNG			6월
2017년 실주					
GOM	Shell	Vito			Sembcorp
북해	Statoil	Johan Casterberg ph1 HULL	▼		Sembcorp
2018년 수주					
캐나다	Steelhead	Kwipppa ASLNG HULL	2월		
북해	Statoil	Johan Casterberg ph2	X	X	노르웨이 로컬
2018년 POOL					
아프리카	BP	Tortue-Gas	◎	○	vs. SBM+SWS 강세, Technip 등
베트남	PetroVietnam	Block B	○	탈락	○
북해	Statoil	Johan Sverdrup 2차	?		Kvaerner > Aibel
나이지리아	Shell	Bonga SW "Lite"	○ △	○	해외 4개
북극해	Chevron	Rosebank	○ ○	△	Sembcorp
캐나다	Steelhead	Kwipppa(?) Sarita ASLNG Topsides		△	4개 컨소시엄
나이지리아	Eni + Shell	ZabaZaba 컨버전 FPSO		◎	
나이지리아	Total	Ikike		○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중국!! 악재!?

- ▼ BP의 Tortue는 TechnipFMC+COSCO 컨소시엄으로 중국에서 제작이 유력해짐: 큰 악재
- ▷ "中 1~2위 조선사 합병 추진"...한국 빅3 매출합계의 2배 규모

LNG와 컨테이너

- ▷ 대우조선해양, Alpha Gas(Pantheon Traker)와 LNG선 2척 계약: 신조선가는 \$185m
- ▲ Knutsen이 현대중공업에, Endesa 용선 2번대 발주 옵션 행사
- ▲ MSC, 또 컨테이너선 추가 투자: 23,000TEU 6+6?
- ▷ 현대상선의 20척 컨테이너선 발주, 상반기 → 7월로 살짝 연기

기계

- △ 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스마트공장 착공...연산 2만5천대
- ▷ 두산 계열사 'CEO-CFO 대표체제'로...재무개선 주력
- ▲ 현대일렉, 세계최대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
- △ 백운규 "사우디 원전수출 전망 밝다"

ASP & 실적관련(국내외)

지난주 부활절로 클락슨 선가지수 발표는 쉼

- NA

▷ Fredriksen의 Seadrill이 취소한 SHI와 DSME 4척 드릴링: Fredriksen이 다시 매입 협의 중

- Fredriksen은 Seadrill을 개인 회사 Hemen companies를 통해 보유 중인데, 익히 알려진 것처럼 Chapter 11에 따라 일단 4척 모두 계약 취소
- 2013년7월에 발주된 4척의 처음 인도 일정은 2015년 하반기 엿음
- 그러나, 5월28일까지 우선매수권이 주어졌고, 현재 Hemen이나, Fredriksen의 새 드릴링 벤처 Northern Drilling을 통해 매입을 협의 중
- Northern Drilling은 현대중공업이 계약 취소 맞은 2기의 Harsh-Environment Rig 2기를 매입한 바 있음
- 삼성의 West Draco, West Dorado에 \$728m의 잔금, 대우의 West Aquila, West Libra에 \$917m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
- ▷> 삼성중공업은 30% 선수금 물취, 대우조선해양은 XX%(?의) 선수금 물취 및 총당금으로, 4억\$ 안팎에 매각될 경우 손익에 영향은 없습니다.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BP의 Tortue는 TechnipFMC+COSCO 컨소시엄으로 중국에서 제작이 유력해짐: 큰 악재

- TechnipFMC+COSCO가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Upstream은 업데이트
- BP가 마지막 순간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만약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FPSO를 최초로 중국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
- BP의 선택이 향후 여타 오일메이저들에게도 중국산 아프리카 FPSO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
- Technip이 최종 승자가 될 경우, COSCO는 Hull과 LQ(Living Quarter)와 Integration을 담당할 예정이고, 나머지 탑사이드는 TechnipFMC가 여타 제작사와 하청 계약을 할 수도
- 중국을 선택한 배경이, 가격 때문인지, 로컬 컨텐츠 때문인지는 불투명하지만, 스케줄이 촉박한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시장은 놀라는 반응
- 이에 대해 BP는 알려진 일정 등의 리스크가 과장되었고, FPSO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크지 않다고 설명
- FPSO의 가동은 2021년말이고, 올해 6개월 정도의 FEED를 진행: spread-moored FPSO, 100m~200m 작업, VLCC 크기 hull에 탑사이드는 1.3만톤

(03월2주) ▲ Tortue의 로컬컨텐츠 관련 이슈

- 15TCF의 가스필드 개발을 위한 Tortue FPSO 입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2주 전 EPC사들에게 로컬컨텐츠 관련 상세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작년말부터 BP의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제작사 선정이 미뤄진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작사 선정이 이번주로 곧이라는 JV Kosmos Energy CEO의 언급이 있었고, 관계자는 그보다 빠른 곳이라고도 설명
- 현대중-KBR, 삼성중-Wood Group Mustang, Modex-Jurong, SBM Offshore-SWS, TechnipFMC-COSCO, DSIC 단독 참여인 것으로 전해짐
- 현대중공업-KBR 컨소시엄이 가장 유리한 입지이지만, BP는 SBM-SWS(중국 외고교)에도 관심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승리한 컨소시엄은 바로 6개월~7개월의 FEED를 시작하고, FEED를 마칠 무렵 FID 예정
- 이후 36개월의 타이트한 제작 일정을 따라 2021년말 첫 가스 생산 예정
- 1.3만톤 탑사이드에, 500mcfd 가스 생산 캐파, 생산된 가스는 옆의 Floating LNG로 파이프라인 이동 예정: GoFLNG로 선정
- 하반기 FID 전에 가스 판매 계약도 완료될 것으로 보임

(01월4주) ▲ BP의 Tortue FPSO, 최종 미팅 열렸고, 곧 결정

- 최근 BP는 중국 야드에서의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함
- : 이는 중국을 활용해 경쟁사들의 제안 가격을 낮출려는 자적일 수도 있고, 중국의 금융 혜택 때문일 수도 있다는 평가

(01월1주) ▲ BP의 Tortue FPSO, 발주 임박

(17년10월4주) △ BP의 Tortue FPSO, 이르면 연내 FEED 선정: HHI, SHI 경합

(17년09월5주) △ Tortue FLNG의 pre-FEED 담당으로 CH2M 선정



▶ LNG

▶ 대우조선해양, Alpha Gas(Pantheon Tanker)와 LNG선 2척 계약: 신조선가는 \$185m

- Pantheon Tankers의 자회사 Alpha Gas와 173,400cbm LNG선 2척을, 2020년말 인도 일정으로 \$370m에 계약
- 스펙은 ME-GI, re-liquefaction system 장착
-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선박보다 30%의 연비 개선에 환경규제를 맞춘 사양이라고 설명
- 동 선주는 2011년에 STX조선해양에 160k CBM LNG선 1척을 발주해, 2015년에 인도받으며 LNG선 시장에 진입한 바 있음

>> 신조선가가 낮습니다.

(03월1주) ▲ Pantheon → 대우조선해양, 2월 2건 4척의 LNG선

- 대우조선해양은, 2월에 두 번째 LNG선 프로젝트를 수주해, 2월에만 그리고 올해 총 4척의 LNG선을 수주
- 한국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2월6일 수주는 미주지역 선주, 26일의 수주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인데
- 앞의 2척은 BW의 LNG선 발주였고,
- 두 번째 2척은 Flex LNG라는 설도 있었지만, 주말 외신에서 그리스 Pantheon인 것으로 업데이트
- 2020년9월 인도, 2척 계약금액은 \$368m
- Pantheon은 2011년 STX조선에 160k CBM을 발주하며 시장에 진입(2015년 인도)했고, 2012년에 옵션을 행사했지만 이후 조선사 위기에 발주를 취소한 바 있음

▶ Knutsen이 현대중공업에, Endesa 용선 2번째 발주 옵션 행사

- 노르웨이의 Knutsen OAS Shipping은 한국 현대중공업에 옵션을 행사해 180k cbm LNG선 1척을 추가 발주
- 이는 스페인 에너지사 Endesa와 작년 6월 용선 기반으로 발주한 LNG선에 링린 옵션을 행사한 것
- 이번 용선 계약도, 5년 용선 + 2년 또는 1년 x 2이나 7년 용선 계약 기반: \$60천/일
- 이태리 Enel의 자회사인 Endesa는 미국 Cheniere Energy의 Corpus Christi LNG로부터 20년간 2.25MTPA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신조 투자들이 마무리 국면
- >> 애초 3척의 LNG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년 Endesa는 Knutsen 용선발주로 현대중공업에 LNG선 1척을 발주했고
- >> 이후 작년 10월 2척의 LNG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입찰을 연바 있었는데, 납기가 2019년으로 상대적으로 빨라 이미 발주된 선박을 흡수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했습니다.
- >> 다행히 2척 중 1척은 현대중공업의 신조로 이어집니다.

(01월1주) △ Endesa의 LNG선 2척의 신조/용선 제안서를 제출

- 11월말 Commercial Offer가 제출되었고, 2019년 인도물을 희망
- 제안은 신조와 기존선 모두에 해당
- Endesa는 LNG선 3척을 시장에서 구해오다가, Knutsen OAS의 용선발주로 현대중공업 1척 발주에 그쳤다가, 올해 10월 다시 LNG선 2척 신조/용선을 위해 시장에 나타남
- >> 신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만, 인도가 2019년으로 다소 빠듯합니다.
- >> 기존선/건조선 흡수라도 시장 수급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16년11월) 스페인 Endesa, LNG선 2척 용선 입찰

(16년10월) △ Endesa, LNGc 2호선 발주 준비

(16년06월) △ Knutsen, 스페인 Endesa LNG 용선 기반으로 HHI에 LNG선 발주

△ COSCO Shipping Energy, LNG 22척 추가 확보 계획 발표

- Cosco Shipping Energy Transportation은 LNG선대를 현재 16척에서, 2020년까지 38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 추가되는 선종의 일부는 스팟 시장을 타겟으로 발주할 수도 있다고 전함
- COSCO Shipping Energy는 중국 후동중화에서 LNG선을 건조해왔음
- COSCO 대표는 2020년 중국의 LNG 수입이 45MTPA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

>> 자국 발주를 기반으로 후동중화의 LNGc 캐파는 풀로 차겠군요.

▶ 기타

△ Trafigura, 발주/건조 중인 선박에 모두 Scrubber 장착키로 선택

- 32척의 탱커, PC선, VLGC를 발주해 건조 중인 Trafigura는,
- 모든 선박에 Scrubber를 장착하기로 최종 결정

(03월4주) △ Trafigura, VLGC 추가 2척 발주

- Trafigura는 1월 현대중공업에 80k CBM 2척을 발주한데 이어,
- 최근 옵션을 행사해 2척을 추가 계약: 2020년 인도, 최근 \$400m의 채권 발행에 성공
- 동선주는 34척의 VLGC를 건조 중: HHI에 8척, 현대삼호중공업에 2척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④ Unisea Shipping Ltd.→Samsung HI, TK(115k) 2척

▲ 삼성중공업, Unisea로부터 Aframax 4척 수주
- 그리스 Unisea shipping은 삼성중공업에 115k DWT 탱커 4척을 계약
- 2019년4분기 인도 단납기이며, Tier III 사양에, 신조선가는 척당 \$50m으로 전함
: 동선주가 2015년에 SHI에 비슷한 선형을 4척을 발주했을 때 신조선가는 \$55m이었음
- 과거 이 4척 중 3척은 작년에 인도되었고, 마지막 1척은 리세일하였음

⑤ Pantheon Tankers→Daewoo (DSME), LNG(173k) 2척

- 위의 LNG 섹션 참조

⑥ Kyklades Maritime→Hyundai HI (Ulsan), TK(319k) 2척

(3월4주 플래쉬) ▲ 현대중공업, Kyklades Maritime, VLCC 2척 수주
- 2017년11월 12년만에 VLCC 2+2척을 발주한 Kyklades가, 추가로
- 2척의 319k DWT VLCC를 현대중공업과 지난달 계약한 것으로 업데이트: 옵션 여부는 불투명
- 2019년말~2020년초 인도(1~4호선은 2019년 4월~9월 인도)로, 신조선가는 \$85m을 하회하는 것으로 전함: 2017년의 4척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함, Tier III 스펙
- 한편 성동조선에 발주했던 아프라막스 5척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건조가 어려울 것으로 봄

⑦ Oceangold Tankers→Daehan Shipbuilding, TK(114k) 2척

N/A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MSC, 또 컨테이너선 추가 투자

- MSC는 3,500teu와 23,000teu 발주를 중국, 한국 조선사들과 협의 중: DF엔진
- 작년에 이미 22,000teu 11척을 대우조선해양에 5척, 삼성중공업에 6척 발주했는데 추가 발주를 준비 중
- 3,500teu는 중국 조선사들과 dual-fuel 3,500teu 3척 + 옵션 3척을 협의 중: 2020년 인도, 신조선가는 \$45m 안팎으로 전함, Huang Wenchong SB 이름이 언급
- 23,000teu는 dual-fuel 스펙에 6척 + 옵션 6척으로 준비 중이며
- 2020년~2021년 인도 일정으로 14,000teu 12여척도 인콰이어리를 던진 것으로 전함: 다만 작년에 발주한 11척 정보가 잘못 떠도는 것이라고 선주는 부인
- MSC는 가격에 민감한 편인데, 23,000teu는 \$145m~\$150m, 14,000teu는 \$105m~\$110m이며 LNG Fuel의 경우 \$10m~\$15m이 추가됨
- MSC의 추가 컨테이너선 투자에 대해, 시장 전문가는 놀랍지 않다고 진단: 이미 올해 들어서 20척 이상의 post-panamax 용선을 늘린 상황이어서, 추가 투자에 대한 욕구 충만하다고 설명
(17년10월) ▽ 삼성중공업의 MSC 컨선, Scrubber 선택하며 선가 하락 조정
(17년8월) ▲ MSC의 22,000teu,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11척 나눠 수주: Scrubber 장착기로

▷ 현대상선의 20척 컨테이너선 발주, 상반기 → 7월로 살짝 연기

- 현대상선의 23,000teu 12척, 14,000teu~15,000teu 8척 신조 투자가 상반기 내로 마무리될 일정이었음
- 이달말까지 상세 스펙을 조선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저부 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발주가 7월까지로 연기된다고 전함
- 현대상선은 2M과의 얼라이언스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dual-fuel propulsion system과 LNG 병킹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그러나 정책당국은 GM 사태, 금호타이어 매각 등 더 중차대한 이슈들 때문에 일정이 살짝 밀리는 것이 아닌가 외신은 짐작

▲ Korea Line, 얼마전 현대중공업 다음, 또 VLCC 2척 추가 발주

- 대한해운은 얼마전 GS 칼텍스 용선으로 VLCC 2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다음
- 또 S-Oil과 용선 계약(5년, \$196m)을 체결해 추가로 2척의 VLCC를 계약한 것으로 전해짐
- 다만, 신조선과 건조 조선사는 알려지지 않음: 국내 조선사인 것으로만 전해짐
(03월3주) △ 대한해운, 현대중공업에 VLCC 2척 본계약 체결
- 익히 알려진대로 GS칼텍스와의 COA를 기반으로,
- VLCC 2척을 총 \$173m(척당 \$86.5m)에 계약
(03월2주) △ Korea Line, VLCC 투자
- 대한해운은 GS칼텍스와의 COA를 체결: 2019년말부터 총 \$197m 금액: 작년의 VLCC 2척 발주와 매칭



▲ 일본 Itochu → 현대미포, 1,800teu 2척 수주

- 현대미포조선은 일본 트레이딩 하우스 Itochu로부터 1,800teu 2척을 계약: 계약은 2월에 확정되었고 인도는 2019년, 신조선가는 \$23m
- 이번 발주는 한국의 CK Line과의 10년 용선(\$10,000/일) 기반 발주인 것으로 전함 (02월4주) ▲ Nissen Kaiun, 현대미포에 feeder 발주
- 일본의 Nissen Kaiun이 최근 들어 처음으로 자국 외에서 선박을 건조키로 함: 10억\$ 가까운 신조를 일본 내에서 하고 있음
- 현대미포조선에 1,800TEU Bangkok-max 4척을, 2019년말 인도 예정으로 발주: 1월말
- 이번 발주는 한국의 KMTC와의 10년 용선계약 기반 투자인 것으로 알려짐
- 선가는 \$20m, KMTC와의 용선료는 \$12,000/일
- Chittagong에서의 젠트리 크레인 사고 때문에, 최근 12개월간 Bangkok-max의 용선료는 +40%나 상승

▽ 한국 선사 3곳, Vale의 2차 VLOC 14척, 중국 조선사들과 협의 중

- 한국의 Kmarin, H-Line, 대림은 Vale와 각각 8+2, 2, 2척의 용선 계약을 맺고 있다.
- 2020년 인도 일정으로 신조투자를 중국 조선사들과 협의 중
- 현대중공업이 VLOC 건조가 가능하지만 신조선가 차이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과 발주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함
- 현대중공업의 제시 가격은 \$80m 상회 vs. 중국은 \$74m에 불과: 양자간, 칭따오 Beihai SB과 협의 중
- 작년 Vale는 37척의 VLOC를 용선했고, 올해도 12여척을 추가 용선해, 노후 개조 VLOC를 대체 중

>> 용선료에 맞춰 투자하자면 중국 밖에 안되는가 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와 예상

(전체상선 DWT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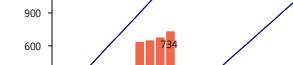
상선 전체 발주량

HI 발주량예상치(DWT백만)

컨선 천TEU

컨선 발주량

컨선 발주량예상치



17년 예상 120만TEU

18년 예상 100만TEU

(벌크선 DWT백만)



BC 발주량

BC발주량예상치(DWT백만)

TK 발주량

TK발주량예상치(DWT백만)

TK발주량예상치(DWT백만)



17년 예상 22백만DWT

18년 예상 32백만DWT

(LNG 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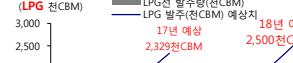
LNG선 발주량(척수)

LNG 발주(척수) 예상치

LOI 포함 7척

17년 예상 25척 예상

18년 30척 예상



17년 예상 2,329천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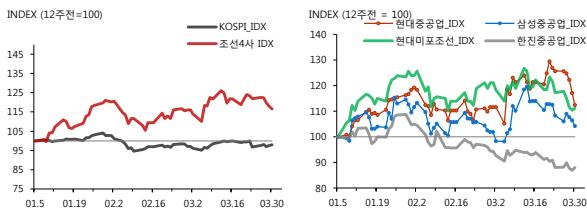
18년 예상 2,500천CBM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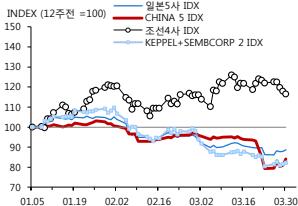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3월1주								
중국	Taizhou Kouan SB	18.2.8	중국	CCSC Offshore Eng	해양설치		2020	1
18년03월2주								
BIG6	Samsung HI	18.3.12	유럽	GasLog	LNG	180k cu.m.	2020	1
		18.3.9	Unknown	Unknown	LNG	180k cu.m.	2020	1
	Daewoo (DSME)	18.3.14	Unknown	Unknown	LNG	173k cu.m.	2021	2
	Hyundai HI (Ulsan)	18.3.5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0	2
중국	Beihai Shipyard	17.12.1	중국	COSCOCS(GZ) RoRo	PCTC	2k Cars	2020	2
	Jiangsu New YZJ	18.1.1	유럽	LMZ Shipping	BULK	82k DWT	2020	1
	AVIC Dingheng SB	18.2.1	유럽	GEOF	PTK	4k DWT	2020~2021	6
18년03월3주								
BIG6	Hyundai HI (Ulsan)	18.3.15	한국	Korea Line	TK	300k DWT	2019~2020	2
중국	Bohai Shipbl.	18.3.15	중동	Kuwait Oil Tanker	TK	318k DWT	2020	1
	PaxOcean Zhuhai	17.12.19	유럽	Stena Oil	TK	6k DWT	2019	1
	AVIC Dingheng SB	18.1.25	유럽	GEOF	PTK	4k DWT	2020	4
	Jiangsu Dajie HI	18.3.15	러시아/CIS	Amurskaya Neftebaza	PTK	5k DWT	2019	1
	CMHI (Jiangsu)	18.3.16	북미	Sunstone Ships Inc	CRUISE	0k Berths	2020	1
	GSI Nansha	18.3.16	Unknown	Aurora Tankers	PTK	55k DWT	2021	4
일본	Saiki Hwy. Ind.	18.3.21	일본	Far East Shpg. & Trg	BULK	37k DWT	2019~2020	2
	Murakami Hide	17.12.1	Unknown	Murakami Hide	LPG	5k cu.m.	2018	1
	JMU Ariake Shipyard	18.3.21	일본	JX Ocean	TK	300k DWT	2020	1
18년03월4주								
BIG6	Samsung HI	18.3.28	유럽	Unisea Shipping Ltd.	TK	115k DWT	2019	2
	Daewoo (DSME)	18.3.28	유럽	Pantheon Tankers	LNG	173k cu.m.	2020	2
	Hyundai HI (Ulsan)	18.3.15	유럽	Kyklades Maritime	TK	319k DWT	2019	2
한국	Daehan Shipbuilding	18.2.9	유럽	Oceangoing Tankers	TK	114k DWT	2019	2
국영	Bohai Shipbl.	18.3.23	유럽	Golden Ocean Group	BULK	208k DWT	2020	2
	Shanghai Waigaoqiao	17.12.29	아시아	Unknown Hong Kong	BULK	180k DWT	2020	1
민영	Shanghai Zhenhua	18.2.1	중국	Zhejiang Qiangfeng	OFF-SUPP		2020	1
	Shanghaiqiau SB	18.3.23	유럽	Seatankers Mngt	BULK	82k DWT	2020~2021	2
	COSCO HI Yangzhou	17.12.28	아시아	Salim Group	BULK	87k DWT	2020	2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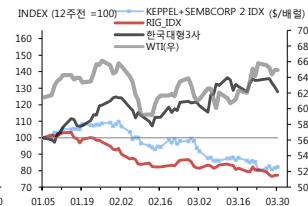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현증일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 현대미포조선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中 1~2위 조선사 합병 추진" ...한국 빅3 매출합계의 2배 규모

<http://lnr.li/zD44F>

중국 국무원은 중국선박중공(中國船舶重工·CSIC)과 중국선박공업(中國船舶工業·CSCC) 간 합병을 예비 승인

두 조선사가 합병할 경우 연간 매출 규모가 총 5천80억 위안(86조2천940억 원)

시가총액 면에서 세계 1~3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업체 3곳의 매출합계의 2배를 넘는 규모

 앞서 CSCC의 상장 계열사인 CSSC 해양·방무장비(中船海洋與防務裝備)는 작년 9월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CSSC가 자사가 포함된 중요한 거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힘
 CSSC 해양·방무장비는 작년 9월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거래가 정지

CSSC의 계열사인 후동중화조선은 중국내 첫 LNG선용 조선소이며, CSIC는 중국내 첫 초대형 유조선 조선사

△ BP, 유조선 4척 발주...한국 조선 수주하나

<http://lnr.li/17hsa>

영국 오일메이저인 BP(British Petroleum)가 최대 4척에 달하는 수에즈막스 원유운반선 발주를 추진중

BP는 오는 2019년까지 이들 선박을 인도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BP의 수에즈막스 발주에는 2척의 옵션분이 포함

오는 2019년 12월까지 이들 선박을 인도받기 위한 시간이 다소 축박한 상황

△ VLCC 폐선 급증 vs 늘어나는 발주

<http://lnr.li/RW7q>

 글로벌 유조선사들이 올해 노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을 무더기 폐선하는 동시에 선박 발주에 나서고 있어 주목
 을 들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7척의 VLCC가 폐선

선령 18년 이상된 4척의 VLCC가 폐선된 가운데 선박의 평균선령도 18.5년으로 지난해(21.5년)에 비해 더 줄어들면서 선박수명은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운임시장은 오는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이같은 전망이 202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규제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유조선 폐선 및 신조선박 발주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공업, 26억\$ 카타르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국제분쟁

<http://lnr.li/BGNr>

지난 24일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카타르 바르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

... 26억\$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26일 공시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루ם과 미국 오일메이저인 엑손모빌의 합작사

라스가스(RasGas)에서 합작사 사명을 바르잔가스컴퍼니로 변경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1년 바르잔가스로부터 수주한 해양플랫폼 상부플랜트 3기에 대한 것

바르잔가스는 시설물 설치 등 공사가 완료된 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

현대중공업 측은 전체공사금액의 3배에 달하는 무리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공시를 통해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

...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판단한다"면서 ...

...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일방적, 상도의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소송임이 빨리 전파되며, 월요일 당일 주가는 8% 가까이 하락했지만, 금방 보합권으로 회복했습니다.

△ 정기선, 현대로보티스 5% 취득...현대중공업그룹 승계 '신호탄'

<http://lnr.li/JSr8>

 최대주주 정몽준 이사장의 현대로보티스 지분율(25.8%)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재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
 현대로보티스와 KCC는 29일 공시를 통해 정기선 부사장이 KCC가 보유한 현대로보티스 주식 5.1%(83만1천주)를 3천540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힘

2009년 현대중공업 재무팀에 대리로 입사,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MBA),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다 2013년 6월 현대중공업에 다시 들어옴

 2015년 1월 상무, 2016년 1월 전무(선박영업부문장)로 승진한 뒤 재입사 4년만인 지난해 11월 부사장(선박영업부문장과 기획실 부실장 겸임) 자리에 올라 경영 전면
 : 2016년 말 분사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 부사장직도

정 부사장은 이번 지분 매입 대금 약 3천5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마련

관계자는 "3천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법과 규정대로 모두 완납할 예정으로 안다"고 전함

증여 규모가 3천억원이라면, 50% 세율에 따라 정 부사장이 납부할 증여세만 1천500억원에 이를 전망



△ 현대重그룹 지주사, '현대중공업지주' 공식 출범

<http://lnr.li/hxkiQ>

현대로보티스는 이날 주총에서 사명을 '현대중공업지주'로 변경: 초대 대표이사는 권오갑 부회장
현대중공업그룹이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주어진 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
자회사 간 지분 정리와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IPO)에 올해 초점이 맞춰질 것

△ 현대중공업, 英 로이드선급으로부터 VLOC 기본승인 획득

<http://lnr.li/h3HKV>

27일 현대중공업은 LNG 연료형 25만t급 VLOC(대형광석선) 설계와 관련해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AIP를 취득
지난해 호주 석유가스기업 우드사이드 등과 LNG 연료형 VLOC 공동개발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고 활동을 시작

△ 연이은 VLGC 수주...현대중그룹, 올해 벌써 22억\$ 수주

<http://lnr.li/bzLiw>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삼호중공업이 스위스 선사로부터 2척의 VLGC(초대형가스선)를 추가 수주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2억\$ 규모의 선박 31척을 수
스위스 트라피구라(Trafigura)는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에 8만m³급 VLGC 2척을 발주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지난해 VLGC 2척 수주와 함께 확보한 2척에 대한 옵션계약이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선사로부터 최대 4척의 VLGC를 수주

△ 현대중공업의 이상한 유상증자 무차입 내세우지만 속내는 승계 실탄 확보?

<http://lnr.li/G9UWt>

증권가에서는 지주사 현대로보티스가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에 무게를
현재 현대로보티스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은 27.84% 수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
...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이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10%포인트씩 높아질 전망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
현대중공업 유상증자 배경이 '지주사 체제 구축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
현대오일뱅크가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현대로보티스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쓰인 '실탄'을 다시 채워넣을 수 있다는 의미

△ 세월호, 1만t급 현대重 해상크레인이 5월에 똑바로 세우기로

<http://lnr.li/rGIOc>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부두에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1만t급 해상크레인이 동원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국내 최대 해상크레인 'Hyundai-10000'·길이 182m, 폭 70m으로 최대 1만t의 중량물을 들어올릴 수
세월호 치립 작업에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제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작
2013년 10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착공한 지 1년 4개월 만에 완성

▶ 삼성중공업 보도

△ 남준우 삼성重 사장 "LNG선 수요 늘어...내년 흑자 노력"

<http://lnr.li/C4MpC>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주 시장 회복에 앞서 LNG(액화천연가스)선, 해양플랜트 등 삼성중공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
... 수주 활동에 매진해 내년부터는 매출이 턴어라운드(증가 전환)하고 흑자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남준우, 삼성중공업의 호주 해양플랜트 수주전 승리 자신

<http://lnr.li/QHMID>

27일 업스트림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유회사 코노코필립스가 최근 호주에서 바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
... 호주 국가해상석유안전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
삼성중공업이 엔지니어링회사 테크닙FM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입찰에 뛰어들었고 네덜란드 조선사 SBM오프쇼어, 일본 조선사 모텍도 경쟁
>> 지난주 주보에 업데이트된 Barossa FPSO의 FFED 입찰입니다.

△ '일감절벽' 삼성重, 3년새 직원 3100명 줄여

<http://lnr.li/2EhvF>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1만680명으로 집계됐다. 3년 전에 비해 22.5% 감소
희망퇴직을 통해 연내 1100~2500명을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
직원들의 임금도 줄: 2014년 7200만원이던 평균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으로
이달 들어 임금 반납 대상을 사원, 대리급까지 확대하는 등 하리띠를 더욱 즐라멤: 이달부터 사원, 대리도 임금을 10%씩 반납해 고통분담에 나선 상황

△ 삼성중공업, 세계 최초 '스마트십 사이버 보안' 인증 획득

<http://lnr.li/N15Po>

선박 운항 기술에 ICT(정보통신기술)가 융합되어 선박 내 또는 선박과 육상 간 정보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
... 사이버 공간에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의 필요성이 강조
지난해 6월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마스크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물류 시스템이 마비돼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중단되는 등 약 3억\$의 손실이 발생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내·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의 데이터와 ...
... 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소 등을 보호하는 스마트십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착수해 최근 ABS의 인증을 획득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망갈리아 조선소 매각 최종고비 넘어

<http://lnr.li/EkSRQ>

망갈리아 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이 자구안 마련 후 처음으로 매각하는 해외 자산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매각이 임박

대우조선해양의 망갈리아 조선소 지분을 인수키로 한 네덜란드 다멘 조선이 지난 23일 루마니아 정부와 망갈리아 조선소 지분 거래와 관련,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

대우조선해양은 망갈리아 조선소 매각으로 29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재무제표상에서 망갈리아 조선소의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털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망갈리아 조선소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 등을 덜어낼 수 있게 됨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까지 5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자구안을 추진 중

자구안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풍력발전업체인 드원드와 선박플랜드 부품 제조업체인 삼우중공업과 신한중공업, 그리고 ...

... 중국 블록공장인 대우조선해양 산동유한공사를 매각해야 함

관계자는 "드원드와 삼우중공업은 자구 계획에 따라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함

신한중공업과 중국 블록공장의 경우 2020년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

▷ 5월 임기 만료...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 오리무중

<http://lnr.li/JVq4e>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후배들과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면 자리를 넘기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

이달 30일로 예정된 대우조선해양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사장의 연임 건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

회사 내부는 낙하산 인사만은 막겠다는 의지: 재개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역대 CEO 가운데 외부 인사는 없었다"며 ...

... "만일 구조조정 대한 이해가 전무한 외부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친 정권 인사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정성립 사장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남상태 전 사장이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연임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친 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인사청탁 등 비리 혐의로 조기에 물러남

한편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는 차기 사장 후보를 다음 달 중순에는 결정할 것

이에 대한 임시 주총을 개최하려면 45일 전에 미리 이사 선임 건에 대해 고시해야 함

↳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포기 의사 밝혀

<http://lnr.li/NpfUf>

전화 통화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며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으니까 후배에게 넘길 생각"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8일까지로 두 달 남짓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건이 의결되지 않아 30일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은 논의할 수 없게 됨

정치권에서는 "정 사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며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우조선해양 주총에 '정성립 재선임' 안건이 없네?

<http://lnr.li/ZsTUE>

당초 오는 3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주인을 염두: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는 주인이 필요한 재무제표 건 등을 비롯한 상정안만 확정

이에 따라 정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8일 이전 후보자 추천과 함께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불가피해짐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최근 정 사장은 자신의 뜻을 대주주 측에 밝힌 것

: 한 언론매체는 정 사장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보도해 연임 포기설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중소형 조선사

▷ 장윤근 "STX조선해양 노조 총파업 계속하면 가혹한 법정관리" 경고

<http://lnr.li/770Rk>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이대로 가면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노조는 29일에도 총파업

노조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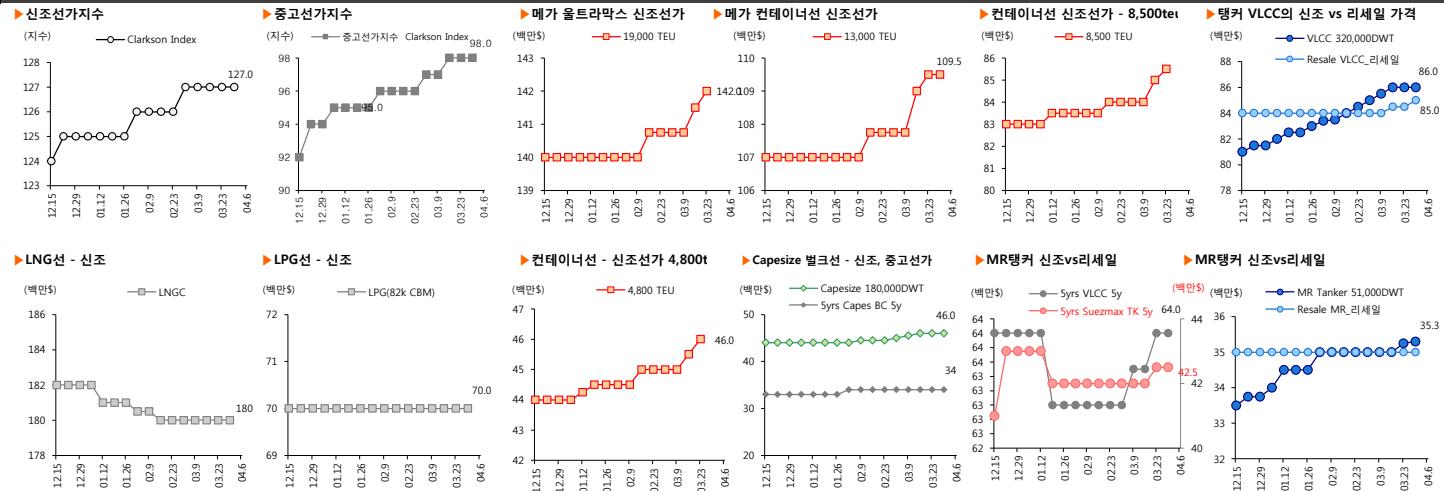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법정관리를 받지 않으려면 4월9일까지 전체인력을 4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노사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이 요구를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생산직 직원 69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는데 노조가 여기에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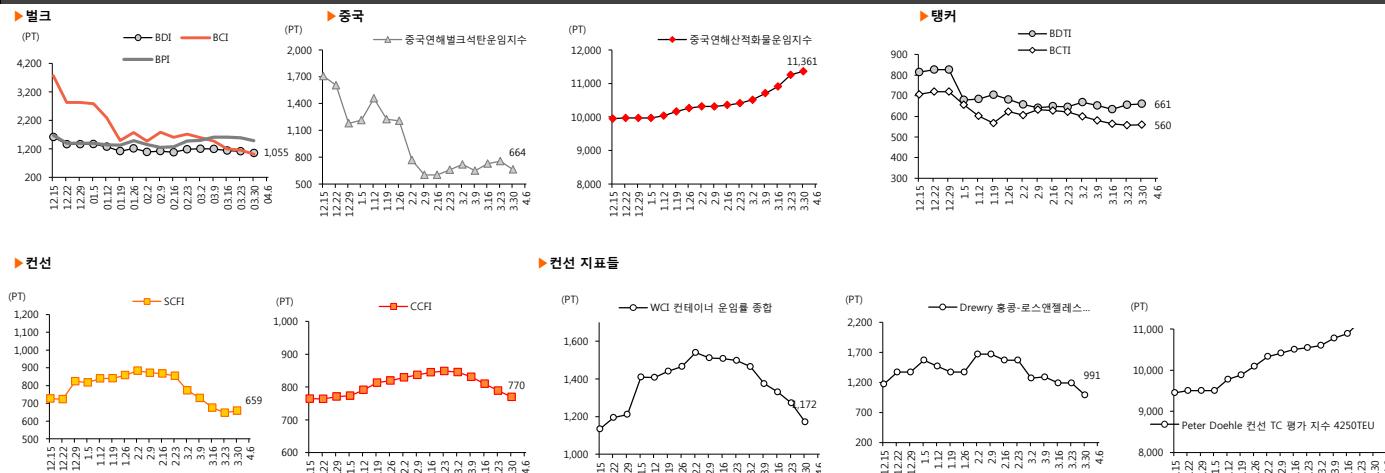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는 28일 담화문을 내고 현재 희망퇴직 등 신청이 매우 적은데 이 상태로 4월9일까지 가면 회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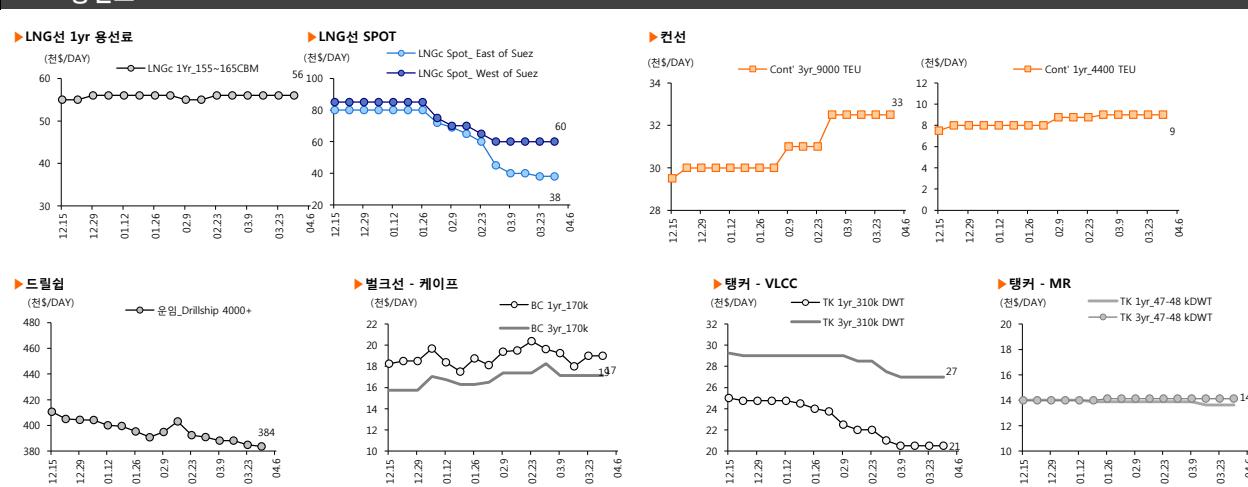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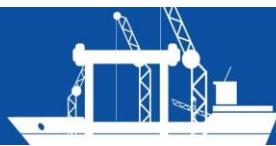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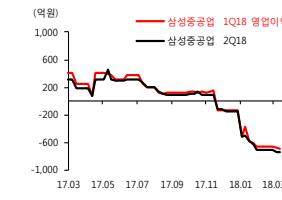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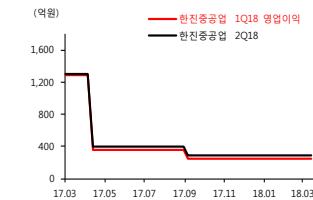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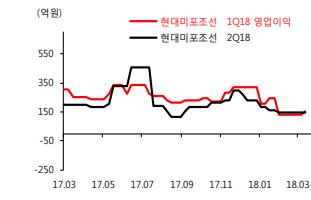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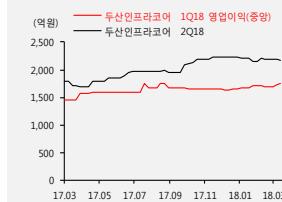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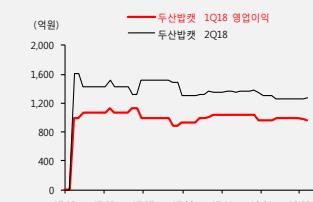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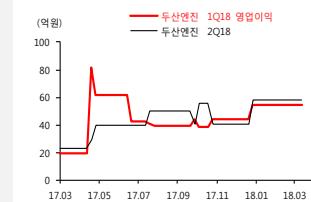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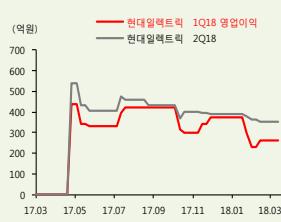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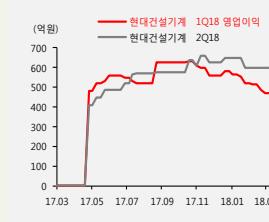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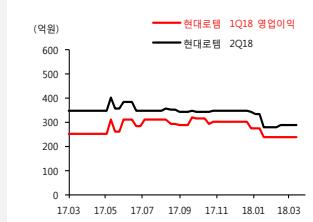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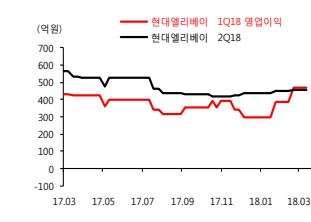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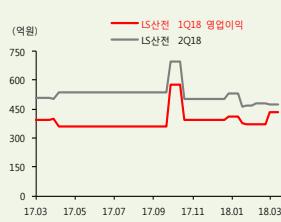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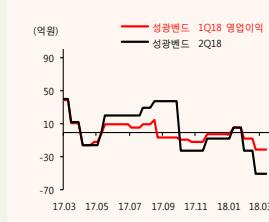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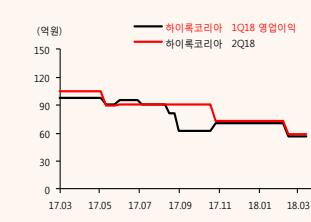
옵션료




Consensus 추이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밥캣

▶ 두산엔진

▶ 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밴드

▶ 태광

▶ 하이 тек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3.03	18.03.10	18.03.17	18.03.24	18.03.30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2,523	2,566	2,222	444	-1,046	-1,591	-1,591	-1,365	-1,351	-13%	-1%	-97.7	132,000
	삼성중공업	206	157	-324	-358	-464	-440	-455	-483	-485	-1%	-1%	-15.9	7,720
	현대미포조선	3,236	4,141	4,141	3,474	2,347	2,347	2,416	2,416	2,443	-30%	4%	40.9	100,000
	한진중공업	398	185	29	-74	-198	-509	-509	-509	-509	-12%	-1%	-6.1	3,125
두산	두산중공업	1,635	1,474	1,420	1,403	1,240	1,240	1,227	1,227	1,227	-13%	-1%	13.0	15,900
	두산인프라코어	1,049	1,166	1,155	1,175	1,253	1,253	1,253	1,249	1,243	6%	7.8	9,670	
	두산엔진	151	144	83	72	-122	-122	-122	-122	-122	-12%	-12%	-47.1	5,760
기계	현대건설기계	40,373	14,801	15,531	16,053	15,369	15,351	15,128	15,128	15,183			11.7	177,500
	현대일렉트릭	32,570	29,740	10,761	10,969	7,850	7,642	7,642	7,642	7,642			10.8	82,500
	LS산전	4,468	4,687	4,803	4,852	4,671	4,626	4,581	4,537	4,537	-6%	-3%	13.5	61,400
	현대엘리베이터	4,602	4,060	5,603	5,603	4,351	3,877	3,877	3,839	3,839	-31%	-12%	20.8	79,700
	현대로템	921	884	841	821	757	757	757	757	757	-8%	0%	20.9	15,800
방산	한국항공우주	2,499	1,834	1,627	1,430	1,280	1,280	1,304	1,304	1,304	-9%	2%	38.3	49,950
	한화테크윈	2,231	1,913	1,831	1,672	912	912	912	912	912	-45%	0%	32.4	29,600
	LIG넥스원	4,635	4,246	3,873	3,560	2,466	2,466	2,466	2,466	2,466	-31%	0%	19.5	48,150
피팅	성광밴드	106	68	106	-8	-9	-38	-38	-38	-38	-38	-38	-299.0	11,500
	태광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0%	0%	41.6	12,550
	하이 тек코리아	1,726	1,763	1,912	1,765	1,413	1,413	1,413	1,413	1,413	-20%	0%	16.2	22,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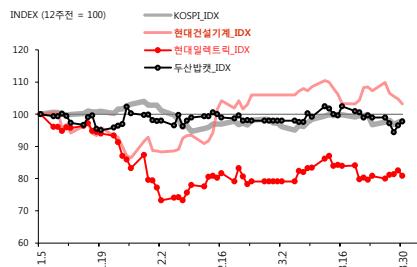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3.03	18.03.10	18.03.17	18.03.24	18.03.30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220,177	229,968	229,279	230,808	241,361	240,578	240,578	195,472	182,210	-1%	1%	0.7	
	삼성중공업	18,897	19,803	19,316	19,573	20,494	20,352	20,321	19,814	19,737	-2%	1%	0.4	
	현대미포조선	123,503	132,123	132,123	127,187	126,280	126,280	126,280	126,280	125,502	2%	3%	0.8	
	한진중공업	8,763	8,325	8,773	6,782	6,675	6,105	6,105	16,105	16,105	-8%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486	30,180	30,258	30,258	29,190	29,190	28,884	28,884	28,884	4%	5%	0.6	
	두산인프라코어	11,404	11,847	11,654	11,539	10,899	10,899	10,899	10,899	10,851	12%	13%	0.9	
	두산엔진	7,812	7,874	7,853	7,947	7,612	7,612	7,612	7,612	7,612	-2%	1%	0.8	
기계	현대건설기계	322,915	126,707	128,963	135,467	131,312	129,371	129,743	131,002	131,515	12%	12%	1.3	
	현대일렉트릭	275,491	308,032	111,365	111,776	106,344	106,687	106,687	106,687	108,180	7%	9%	0.8	
	LS산전	43,069	43,327	43,668	43,590	43,099	42,954	42,882	42,734	42,734	11%	12%	0.0	
	현대엘리베이터	39,106	38,176	43,206	43,206	38,338	36,829	36,829	36,464	36,464	11%	13%	2.2	
	현대로템	17,172	17,472	17,472	17,564	16,526	16,526	16,526	16,526	16,526	5%	6%	1.0	
방산	한국항공우주	17,202	14,618	14,389	14,040	12,950	12,950	12,950	12,988	12,988	10%	14%	3.8	
	한화테크윈	46,958	45,684	45,506	45,632	42,105	42,105	42,105	42,105	42,105	2%	3%	0.7	
	LIG넥스원	35,702	33,404	32,603	32,108	29,179	29,179	29,179	29,179	29,179	8%	11%	1.7	
피팅	성광밴드	16,424	16,380	16,328	16,235	16,057	15,972	15,972	15,972	15,972	0%	2%	0.7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2%	0%	0.7	
	하이 тек코리아	25,123	25,343	25,343	25,343	24,832	24,832	24,832	24,832	24,832	6%	6%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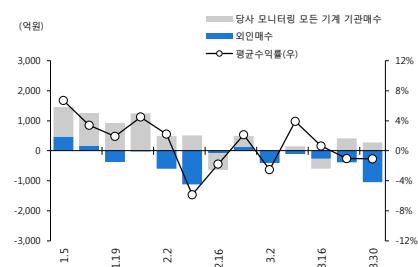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주총) 공기영 현대건기 사장 "올해 매출 3.3조원 목표...수익성 강화"

<http://lnr.li/FddIN>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글로벌 연결 매출 3조2834억원 달성을 계획을 수립했다"며 ...
 ... "철저히 수익성 위주의 가치 경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힘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겠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품질/고성능 제품을 만들고 상응하는 판매가격을 책정해 확실한 수익성 확보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현재 미니굴삭기에서 헐로더, 백호로더 등의 품목으로 확대할 것
 본사 공장은 스마트팩토리화해 고급제품 생산 및 첨단기술 개발을 전담
 중국과 인도 공장에서는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

▷ 두산, '메이저리그' 마케팅 시즌 전체로 확대

<http://lnr.li/Evs8R>

29일 MLB 정규시즌이 개막함에 따라 폭스(FOX)와 MLB네트워크 등 전국 중계 채널, MLB.com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
 ...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펼칠 예정
 관계자는 "지난해 MLB 아메리칸리그 디비전 시리즈 후원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봤다"며 ...
 ... "이번 시즌에는 개막부터 고객들과 접점에서 소통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

원전 vs. ESS, 전망기

▲ 현대일렉, 세계최대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

<http://lnr.li/gHvAO>

현대일렉트릭이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센터가 본격 가동
 : 이 ESS센터는 저장 용량이 150MWh로 세계 최대 규모
 지난해 7월 고려아연에서 ESS센터를 EPC(설계·구매·건설 일괄 시공) 방식으로 수주해 착공한 지 약 8개월 만에 완공
 ESS센터는 1공장 1402m²과 2공장 1058m² 등 총 2개동으로 구성돼 4만5000여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을 저장
 이 장치를 통해 전력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연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해 3년 이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

△ 백운규 '사우디 원전수출 전망 밝다"

<http://lnr.li/8EDQ8>

백 장관은 "(한국 원전의)40년 경험, 무사고, 전 주기 설계·시공·운영에 관한 기술, 반복적인 원전 건설에 따른 세계 최고의 경제성, ...
 ... 여기에 하나 더해진 게 사막에서 원전을 성공한 것이 광고효과가 됐다"고 강조
 다른 기업은 설계변경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비용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
 ... 우리기업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 (UAE 에너지부)장관이 여기에 매우
 사우디 원전수주 경쟁에서 UAE 바라카원전의 성공사례가 사우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

큰 기계들

▷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퇴진..."실적 부진에 책임"

<http://lnr.li/2pX18>

2003년 두산 테크파크 사장, 2006년 두산건설 사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는 두산중공업으로 옮겨 대표이사 부회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음
 주총에서 김명우 관리부문장(사장)과 최형희 재무관리부문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

✖ ▷ 두산 계열사 'CEO-CFO 대표체제'로...재무개선 주력

<http://lnr.li/lvRb>

두산그룹이 계열사별로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각자 대표체제'를 갖추는 작업을 마무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각사 재무통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분석
 두산중공업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김명우 관리부문장(사장)과 최형희 재무관리부문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
 두산인프라코어도 28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고석범 재무관리부문장(전무)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손동연 사장과 고 전무의 각자 대표체제

▷ 두산중공업, 순차입금 왜 늘었나

<http://lnr.li/SD1bL>

순차입금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가량 늘었는데, 단기차입금 비중이 크게 확대: 총차입금 가운데 61.9%인 2조7500억원이 단기성차입금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신규투자, 배당금 지출, 운전자본 부담, 계열관련 자금 유출, 해외 자회사 확대 등에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됐다"며 ...
 ... "지난해 두산분당센터와 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참여 등 계열관련 자금 유출과 가스터빈 개발 등 신규투자로 재무부담이 확대"를 설명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4000억원 안팎이다. 자체 영업활동을 통한 차입금 대응은 제한적
 두산엔진 사업부 매각(822억원)과 귀속되는 두산밥캣 지분(지난 23일 기준 시장가치 3343억원) 등을 감안해도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는 불가피할 전망
 자금 조달의 여건은 더 비우호적: 신용등급이 A급에서 BBB급으로 떨어졌기 때문



△ 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스마트공장 착공...연산 2만5천대

<http://lnr.li/eURvw>

12만3천564㎡ 부지에 조성될 새 공장에는 머신 러닝,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

... 총 14대의 엘리베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상 175m·지하 10m의 테스트 타워가 설치

총 1천200억원의 건설 사업비가 투입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공장이 내년말 완공되면 ...

...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지 생산능력은 기준 공장(7천대)의 3.5배 수준으로 늘어

▷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서 1개 안건 부결...원들러 '반대표'

<http://lnr.li/Y87u2>

주주총회에서 안건 10개 중 '이사의 책임감경' 안건이 부결

해당 조항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의 활동폭을 넓히려 했지만 2대 주주인 승강기 업체 '원들러'의 반대로 결국 무산

부결된 안건은 상법 399조를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 줄이는 조항

회사측은 "과도한 책임부담이 전문경영인의 적극적인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

...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같은 감경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

원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7.1%를 보유한 2대 주주·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와 지분 26.1%

작은 기계들

△ 한진重 자회사 '하코' 매각에 대기업 눈독

<http://lnr.li/V35wD>

한진중공업의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 자회사 하코 본입찰에 국내 식품 대기업 3~4곳이 몰림

앞서 2월 초 예비입찰에는 5곳이 참여했고, 3월 초에는 미국 현지에서 원매자들이 경영진을 면담기도

매각 대상 지분의 잠부가치는 334억원

하코는 하루 1만명분의 기내식을 생산할 수 있고 LA 국제공항에서 공급되는 전체 기내식의 30%를 담당

2016년 기준 801억원의 매출액과 29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지만 특별히 중공업과 시너지를 내진 않음

건설기계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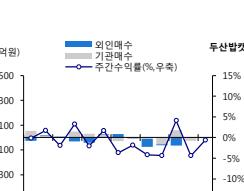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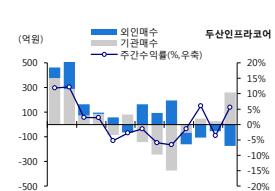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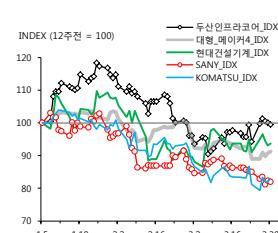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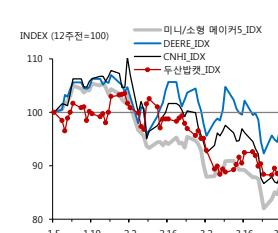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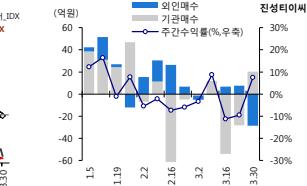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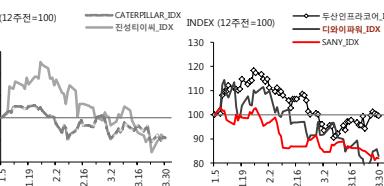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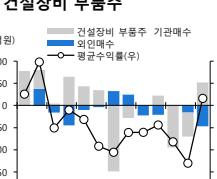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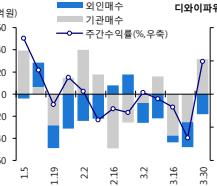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 건설장비 부품주



주선: 부품주4사: 진성티아씨, 디와이파워, 흥국, 동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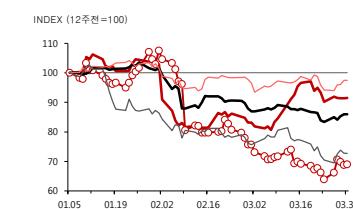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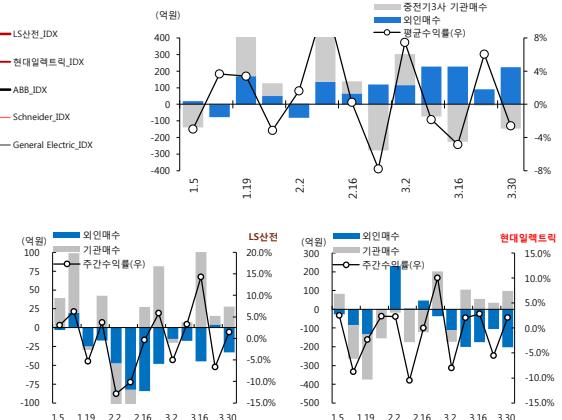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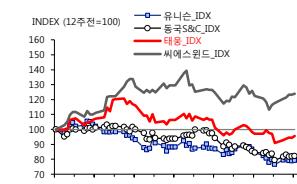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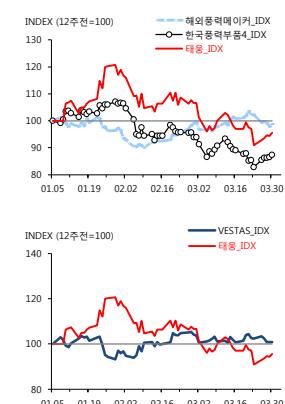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전기 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혼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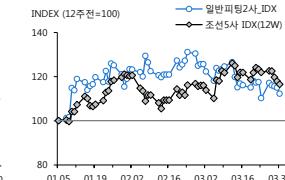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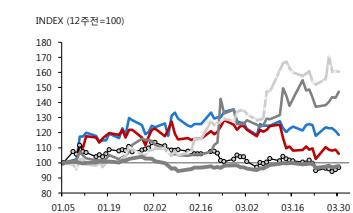


피팅

▶ 피팅 VS 전방1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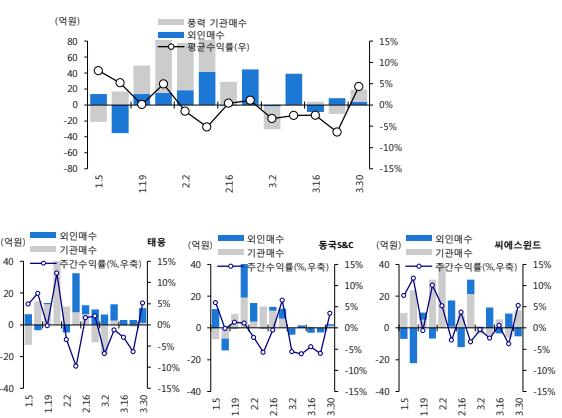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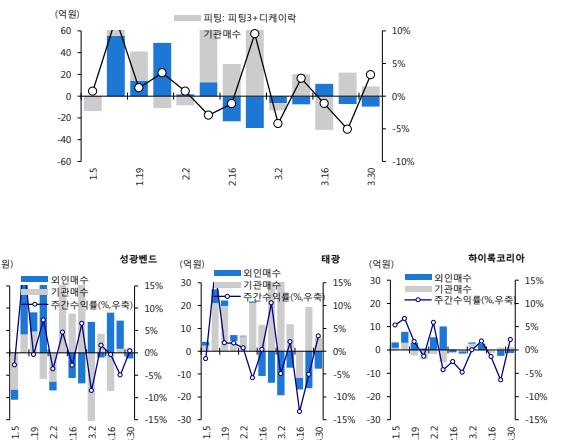


중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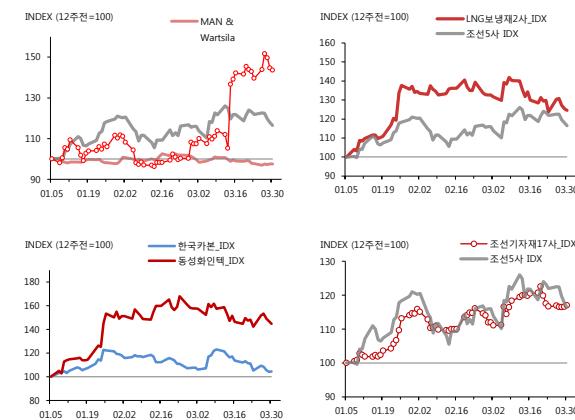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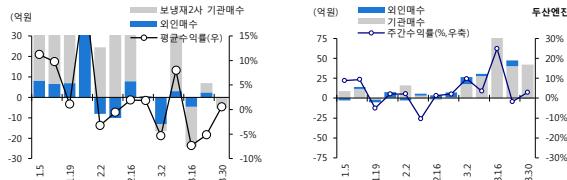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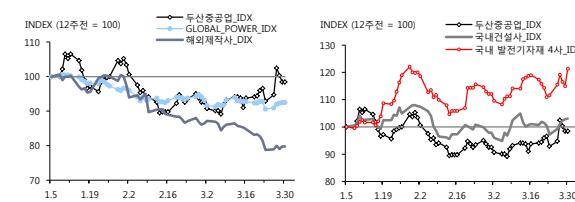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령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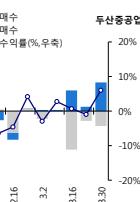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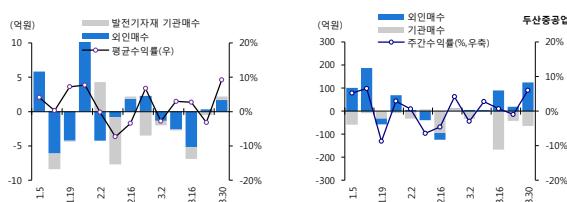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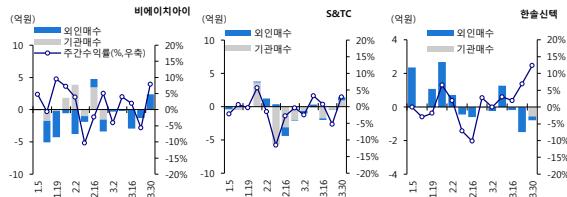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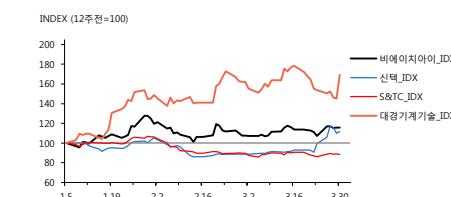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발전기자재 등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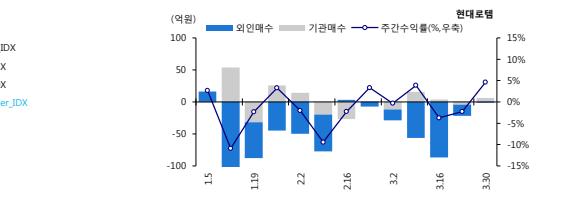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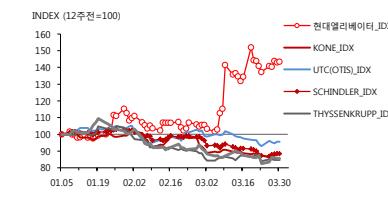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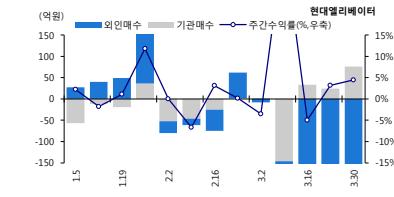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현대엘리베이터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종급) 종목투자의견은 평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7년7월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60%	6.40%	-